

■ 홍명보호 태극전사들 '약속의 땅' 맨체스터 이동

## 한박자 빠른 패스로 '삼바축구' 잡는다

정성룡·김창수 부상에 피로 누적 부담 속

네이마르·헬크·오스카·다미昂 봉쇄 고심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이 결승 진출의 부푼 꿈을 안고 '약속의 땅' 맨체스터로 향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4일(현지시각)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를 떠나 브라질을 상대로 한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4강전(한국시간 8일 오전 3시45분)이 치러질 맨체스터로 이동했다.

태극전사들의 준결승 상대인 '강호' 브라질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와 8강전까지 4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합류했다.

특히 브라질은 4경기 연속으로 경기당 3골씩 쏟아내는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여 사상 첫 금메달 달성을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오른쪽 측면 풀백인 김창수(부산)가 8강전에서 오른쪽 팔뚝뼈(요골)가 부러져 전력에서 아웃됐다.

또 주전 골키퍼 정성룡도 왼쪽 어깨 관절에 염좌와 타박을 당해 브

라질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부상 약재'의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네이마르·헬크·오스카·다미昂 '4각편대 주의보' = 브라질은 4-3-3 전술을 기본으로 4-2-3-1 전술을 교차로 쓰면서 활발한 공격을 펼치는 게 특징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다미昂(인테르나시오날)을 꽂았지만 약점은 있다. 바로 상대적으로 허약한 중앙 수비다.

브라질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이집트와 2골을 내줬고, 온두라스와의 8강전에서도 중앙 수비가 막없이 무너지며 2골을 헌납하며 진땀을 거뒀다.

이용수 KBS 해설위원은 "하파엘(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마르셀루(레알 마드리드) 등 풀백들은 공격과 수비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좋은 자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들은 우리 공격수들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오스카가 중원에서 모



든 볼배급을 맡고 있어 한국 미드필더들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중원에서 오스카를 강하게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극전사 생존전략 '한 템포 빠른 패스' = 브라질이 공격적인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지만 약점은 있다. 바로 상대적으로 허약한 중앙 수비다.

브라질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이집트와 2골을 내줬고, 온두라스와의 8강전에서도 중앙 수비가 막없이 무너지며 2골을 헌납하며 진땀을 거뒀다.

이용수 KBS 해설위원은 "하파엘(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마르셀루(레알 마드리드) 등 풀백들은 공격과 수비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좋은 자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들은 우리 공격수들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오스카가 중원에서 모

그는 또 "브라질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중원에서 반칙으로 상대의 텁포를 끊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기성용(셀틱),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박종우(부산) 등 중원 자원들이 역습 상황에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전 부상-극심한 피로 '2중 악재' = 무엇보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120분이 넘는 연장 헬투를 치르느라 체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게다가 오른쪽 풀백 김창수는 영국 전 시작 5분 만에 오른쪽 팔뚝뼈가 부

러지는 증상을 입었고, 역시 주전 골키퍼인 정성룡도 왼쪽 어깨 관절을 다쳐 정밀검진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은 이를준

비 기간에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부상자들을 대신한 백업 요원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가 됐다.

/연합뉴스



첫골이야

4일(현지시각) 영국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8강전 대한민국과 영국의 경기에서 지동원이 첫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명보호 '지동원 카드' 적중했다

영국선수 경기방식 익숙·186cm 장신 공중볼에도 강해

한국 축구의 혼원인 올림픽 4강 달성이 원동력은 홍명보 감독이 영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마련한 '족집게 전술'의 승리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4일(현지시각)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개최국 영국과의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헬투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겨 준결승 진출을 달성했다.

이날 한국은 키오르 5분 만에 오른쪽 풀백인 김창수가 팔뚝뼈를 다치고 임소화하면서 전반 29분 기성용의 페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영국을 겨냥해 선택한 '지동원 카드'와 영국의 돌파를 막기 위한 '블록형 수비 전술'이 제대로 먹힌 게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홍 감독은 이날 왼쪽 측면 날개로

그동안 주전으로 나섰던 김보경 대신 지동원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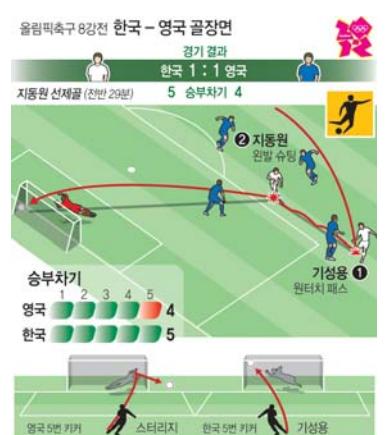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김보경 대신 그동안 교체멤버로 사용해온 '백업 공격수'인 지동원을 선발로 선택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영국 선수들의 경기 방식에 익숙하고 186cm의 장신으로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이 좋다는 점이 홍 감독의 낙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한국은 키오르 5분 만에 오른쪽 풀백인 김창수가 팔뚝뼈를 다치고 임소화하면서 전반 29분 기성용의 페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영국을 겨냥해 선택한 '지동원 카드'와 영국의 돌파를 막기 위한 '블록형 수비 전술'이 제대로 먹힌 게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선제골뿐 아니라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날아오는 공간 패스를 머리로 잡아내 동료에게 연결하는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동원 카드'만큼이나 홍 감독이 선택한 수비전술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 선수들이 촬영하게 배치되자 영국 선수들은 좁은 공간을 뚫는 데 애를 먹었지만 결국 후방에서 전방으로 긴 패스에 의존하는 단순 축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두 차례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선수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영국의 막판 공세를 철저히 막아냈다.

/연합뉴스

## 국민만평

- 김종우



이렇게 놀라워 되는거냐?!

## '축구종가' 위세 꺾은 '골키퍼 선방 2중창'

두 수문장의 손길에서 한국 올림픽 축구의 새 역사가 써졌다.

영국과의 8강 승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1-1로 맞선 전반 40분이 한국 승리의 분수령이 됐다.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준 한국이 황석호의 파울로 두 번째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전반 33분 정성룡은 속이고 동점골을 뽑아냈던 에런 펩지가 다시 키커로 나섰다. 첫 번째 페널티킥을 왼쪽으로 쳤던 펩지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공을 날렸고, 정성룡이 재치있게 공을 쫓으며 역전골을 저지했다.

정성룡의 결정적 선방으로 전

반을 1-1로 마감한 한국은 후반 부상 약재를 만났다.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던 정성룡이 후반 9분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어깨를 다쳤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에 긴급 투입된 이병용은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다. 숨막히는 승부차기 접전은 4-4의 상황까지 이어졌고, 영국의 마지막 키커 대니얼 스타리지의 공을 쳐내며 경기장을 흥분증의 탄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한국의 마지막 키커 기성용이 한국의 4강을 결정짓는 골을 끊어 넣으며 120분간 진행된 혈전을 종료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문 교육

탈출!!  
스피치불안증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カリキュラム



• 휴먼스피치문화원 / 휴먼AD / 휴먼Learner 대표

•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 휴먼포럼 지도교수

• 휴먼스피치문화원 대표/원장 이진학

• 著書 • 論文

•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실제 2007, 5쇄

• 선거전략과 점차 2010.

• 선거연설과 그 전략 1998.

• 스피치교육의 과제와 진로(論) 2005.

• 후보자 TV토론회에서의 언어적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차이(論) 2004.

• 남북경제협력과 지역기업의 대응방안(論) 1992.

• 휴먼스피치문화원은 1997년 전국 최초로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토론(Debate) 연설 및 선거방송토론, 상담과 설득, 협상분야에 체계적, 전문적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를 30여 명 배출함으로써 이 분들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휴먼스피치문화원 교육의 특징

1. 단단한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2. 단순한 표현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터득합니다.
3. 스피치불안증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과정 수료시점에는 설득력 있는 스피치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4.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보는 실습이 아니라 계획, 실습, 모니터링, 분석, 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5. 휴먼스피치는 수료이후 휴먼포럼원으로 꾸준한 보수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 교육의 개요

- 교육기간 : 2012년 9월 4일(화) ~ 12월 18일(화) 15주과정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9시~22시 (3시간 집중교육)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3 세미나실
- 교육대상 : 공무원, 기업CEO, 전문직종사자, 금융인, 일반직장인
- 주요내용 : 스피치불안증해소 / 표현기법훈련(비언어기법) / 인어작기법(메시지구성법, Attention skill) / 설득기법 / 설명기법 / 공감기법 / 카뮤니케이션스킬 / 모니터링훈련

### 교육신청

- 접수기간 : 2012. 8. 6(월) ~ 2012. 8. 24(금)
- 인터넷신청: 네이버카페-휴먼스피치문화원(광주교육센타) 수강신청
- 전화·팩스 : 교육지원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Fax. 053-755-0326)
- 이메일신청 : humanspeech@naver.com

**휴먼스피치문화원**  
HUMAN SPEECH CULTURE CENTER

교  
육  
문  
의